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지역애착 형성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윤정훈 · 조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외국인 유학생과 봉사활동
 - 2.2.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애착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연구 결과
 - 4.1.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의미 변화
 - 4.2. 자기 성장과 정체성 변화 경험
 - 4.3.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 4.4.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 형성
 - 4.5. 정주 의향의 강화
5. 결론 및 논의

* 제1저자: 윤정훈, 교신저자: 조윤경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이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애착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관계의 확장’, ‘자기 성장과 정체성 변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 형성’, ‘정주 의향의 강화’라는 다섯 개의 주제로 구조화되었다.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인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부산을 단순한 유학 공간이 아닌 삶의 중요한 터전이자 정서적 안식처로 의미화하였다. 동시에 언어 장벽, 외국인화 경험, 제도적 제약은 완전한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대학 내부 적응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정서적 과정으로 확장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적응, 지역애착, Giorgi 현상학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국제화 정책 확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확보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며 대학의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23).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를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윤지원·김의진 202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유치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주와 사회통합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은 유학생의 지역 정착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어 능력, 학업 적응, 문화 적응, 생활 만족도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¹⁾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유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을 구성원들이 특정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상호 연결감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공동체 참여와 구성원 간 상호작용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Putnam(2000)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개인의 공동체 적응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의 활동 경험은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며, 이는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²⁾ 봉사활동

1)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어 능력, 학업 적응, 문화 적응, 대학생활 적응 등 개인 수준의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나 지역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지역사회 참여는 축제, 문화행사,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 활동과 구별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지원과 적응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 구성원으로 역할이 전환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유학생이 자신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소속감과 지역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이 이러한 역할 전환을 통해 지역애착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상호작용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치,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단순한 수혜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Berry(1997)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과정에서 주류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이주민과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 역시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실제적 관계 형성과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개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Altman과 Low(1992)는 장소애착을 특정 장소에 대해 형성되는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으로 정의하였으며, Giuliani와 Feldman(1993)은 인간과 특정 장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결속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즉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가 축적되는 의미의 공간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장소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소애착’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소속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애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물리적 장소 자체에 대한 애착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과 소속감 형성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편, 현재까지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이나 생활 만족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봉사활동 과정에서 유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감정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지역애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참여자 자신의 경험 의미를 중심으로 접근한 현상학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과 지역애착 형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 경험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은 지역애착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지역애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봉사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의 의미와 지역애착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대학과 지역사회가 유학생의 사회통합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사회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국인 유학생과 봉사활동

봉사활동(volunteerism)은 금전적 보상 없이 타인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Wilson 2000). Clary 등(1998)의 자원봉사 기능 이론은 봉사 동기를 가치 실현, 이해 확장, 사회적 관계, 경력 개발, 보호, 자아 향상의 여섯 기능으로 분류하면서, 이 동기 구조가 다양한 집단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였다. 특히 봉사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인식과 가치 실현, 이타적 가치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문화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동기로 보고 있다. 안지민(2014)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이주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위치

로 자아정체성을 재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봉사활동이 이주민에게 수동적 적응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이동하는 구체적 계기가 됨을 기술하면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사회적 연대감 형성 효과를 강조하였다. 김은재(2018) 역시 이주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 또한,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 자아 성장, 언어 향상, 심리적 안녕감 등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교연 2019; 윤영집 · 공하림 2025). 유학생의 봉사경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한 정체성 재구성과 연대감 및 소속감 향상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지민 2014; 김은재 2018).

이처럼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은 ‘도움받는 이주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자아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수동적 적응의 위치에서 벗어나 시민적 주체로 이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봉사 현장에서 유학생은 한국인 지역 주민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평등한 협력자로서 참여하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지역 주민, 다문화 구성원, 기관 담당자와 신뢰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박은미 · 김상수 2025). 이는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 ‘적응’을 단일한 과정으로 이해하며 언어, 학업, 생활, 심리, 사회문화 적응 등으로 구분해 왔던 것에서(박은경 2011; 구예원 · 박인권 2015), 최근, 지역사회 속 공동체와의 관계 경험 및 소속감 형성 경험 등 심리적, 과정적 차원까지 확대하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김윤희 2025; 윤지원 · 김의진 2026; 한기덕 2025).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단선적 결과가 아니라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제도 접근성, 지역 참여, 정서적 안정, 소속감 등 다차원적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자원봉사는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종합하면, 유학생 자원봉사는 언어 향상, 관계 형성, 자기효능감, 연대감, 소속감 증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지역사회 신뢰, 지역 애착, 정주 의향까지 이어지는 심층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학생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이 어떤 구조와 의미를 거치는지 질적인

과정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2.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애착

지역애착(place attachment)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연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전영옥 2025). 지역 애착은 장소애착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Altman & Low 1992). Altman과 Low(1992)는 장소애착을 ‘특정 장소에 대해 형성되는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으로 정의하며, 장소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가 축적되는 의미의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Giuliani와 Feldman(1993)은 인간과 특정 장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결속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의 누적은 장소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으로 이어짐을 설명하였다. 전영옥(2025)은 지역 애착을 지역주민이 거주 지역에 대해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연결’이라 정의하면서, 정서적 차원에 무게를 두었다. 최병숙(2012)은 지역애착이 ‘단순한 선호를 넘어 개인이 그 장소를 자신의 일부로 느끼는 수준’과 연결됨을 강조하여, 정체성과의 연관성을 부각하였다.

이들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지역애착의 핵심 개념은 장소에 대한 긍정적 감정, 친밀감, 안정감을 포함하는 정서적 유대와, 장소가 단순한 물리적 배경을 넘어 경험과 관계가 새겨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의미부여, 지역이 자아 개념의 일부로 내면화하는 정체성 연결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애착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성’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한다(Williams & Vaske 2003).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은 특정 장소가 개인의 자아 개념에 내면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장소는 나의 일부이다’, ‘이 장소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인식과 관련된다.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은 특정 장소가 자신의 목표 달성이나 선호하는 활동 수행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기능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으로, ‘이곳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

다'라는 도구적 차원의 애착이다. 여기에, 사회적 유대(place social bonding)라는 개념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유대란 특정 장소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와 공동체 소속감이 장소에 대한 애착이다(Williams & Vaske 2003). '이 장소의 사람들과 나는 강한 유대를 가진다', '이 장소에서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인식을 포함한다. 지역애착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개인이 그 장소를 자신의 일부로 느끼는 수준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최병숙 2012).

Scannell과 Gifford(2010)는 삼원 모델을 통해 '장소애착'을 사람 차원(Person), 심리적 과정 차원(Process), 장소 차원(Place)으로 구분한다. 사람 차원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문화적 수준으로 구분되며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장소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심리적 과정 차원은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로 장소에 대한 감정, 기억, 장소를 가꾸고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장소 차원은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로 나뉘며, 지역 내 공동체 일원과의 교류, 하드웨어적인 공간 자체의 매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지역 애착은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거주 기간,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장소 경험의 질 등이 있다. 그러나 거주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경험의 질이 지역애착 형성에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어(Lewicka 2011), 단기간 거주하는 유학생에게도 질 높은 봉사 경험이 강한 지역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의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은 장소 의존성과 장소 정체성을 모두 강화한다(Kyle et al 2004). 지역 행사 및 봉사활동 참여가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정주의향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역 주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봉사 형태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김교연 2019).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에서 지역애착 형성의 의미 구조를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최소 6개월 이상 지역사회 자원봉사 경험이 있고, TOPIK 4급 이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풍부하게 가능한 참여자를 목적표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고 예비면담을 거쳐 총 6명을 확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프로파일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프로파일

구분	성별	연령	학년/전공	국적	주요봉사경험	봉사동기/기간/형식	한국 거주
A	여	22	3학년 (사이버경찰학)	이란	· 유기견 지원 · 플로깅 · 지역아동센터	· 사회 관심, 보람 · 3년 · 정기	3년
B	여	20	1학년 (자율전공)	이란	· 유기견 지원 · 축제 행사 지원 · 플로깅	· 사회 관심, 보람 · 1년 · 정기	1년
C	여	22	3학년 (국제학부)	인도	· 노인급식지원	· 한국 사회 이해 · 졸업 봉사점수 · 2년 · 비정기	3년
D	남	23	4학년 (국제학부)	우즈베키스탄	· 국제세계의 날 · 행사 지원 · 축제 행사 지원 · 바다 플로깅	· 한국 사회 이해 · 사회 관계 형성 · 2년 · 정기	3년
E	여	22	4학년 (국제학부)	모로코	· 헌혈 · 세계시민 강사 · 축제 행사 지원	· 사회 관심, 보람 · 사회 관계 형성 · 2년 · 정기	2년

구분	성별	연령	학년/전공	국적	주요봉사경험	봉사동기/기간/형식	한국 거주
F	여	24	4학년 (국제학부)	우즈베키스탄	· 지역 플로깅 · 축제 행사 지원	· 사회 관심, 보람 · 사회 관계 형성 · 2년 · 정기	3년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Giorgi(2009)의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자원봉사활동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상학 연구(descriptive phenomenology)는 연구자가 선입견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며, 인간 경험의 본질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드러내고 공통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026년 4월 27일~5월 26일 동안 각 참여자와 1~2회의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각 60~9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동의를 얻어 전 과정을 녹음한 뒤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참여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서는 참여자의 동의를 확인하였다. 면담 녹음 및 전사에 대한 동의, 연구 목적 외 자료 활용 금지, 연구 종료 후 녹음 파일 및 전사본의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봉사 참여 동기와 과정, 봉사 후 인식 변화, 지역사회와 부산에 대한 경험과 정서, 향후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추가 질문을 통해 진술의 맥락을 구체화하였다. 면담질문지는 아래 <표 2>와 같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일지와 메모를 활용해 선이해를 점검하였고, 도출된 범주와 결과에 대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이 교차 검토하며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2009)의 네 단계 절차를 따랐다. 첫째,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전체 읽기 하며 경험의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와 관련해 의미가 전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셋째, 각 의미단위를 연구 맥락에 맞게 심리학적·학문적 언어로 전환하되, 참여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넷째, 전환된 의미단위를 상호 비교·통합하여 5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5개의 하위 의미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2〉 반구조화 질문지 내용

구분	질문내용
봉사 동기와 과정	- 부산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 성장과 정체성 변화	-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팀/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부산(도시)에 대한 인식과 지역애착	- 이 지역은 나의 일부라고 느끼나요? - 이 지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 이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나요? - 이 지역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나요? - 나는 이 지역에 강한 애착을 느끼나요? - 이 지역은 나에게 중요한 곳인가요? - 이지역과 비교할만한 곳은 없다고 느끼나요? - 부산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정주의향	- 이 곳에서서 취업하거나 더 오래 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기타	- 봉사활동 경험이 부산 지역 애착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컸나요?

4. 연구 결과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경험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한 후,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의미단위를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고 유사한 의미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총 15개의 의미단위와 5개의 구성 요소로 구조화되었다. 5개의 구성 요소는 관계의 확장, 자기 성장과 역할 변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부산에 대한 정서적 애착 형성, 정주 의향의 강화로 나타났다. 각 구성 요소와 의미 단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구성요소와 의미단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참여자진술 예시
1.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의미 변화	한국인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한국 친구들과 친해졌고 친구들과의 특별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A)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짐	“아, 나도 이 공동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C)
	외로움 감소와 사회적 연결감 형성	“외로운 느낌 많이 없어졌고 친구 많아져서 좋아요.” (B)
2. 자기 성장과 정체성 변화 경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향상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천천히 들어줘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D)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형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해요.” (E)
	수혜자에서 기여자로의 역할 전환	“고등학생들에게 아라비아 문화를 설명하는 수업을 했어요.” (B)
3.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	“플로깅 봉사를 한 후에는 쓰레기가 더 눈에 보였어요.” (F)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 심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느껴요.” (A)
	유학생에서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한국이 자기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D)
4. 부산에 대한 지역 애착 형성	부산을 집처럼 느끼기 시작함	“부산에 돌아왔을 때 아 집에 돌아왔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
	사람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	“부산 사람들 착해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정 많아요.” (F)

구성요소	의미단위	참여자진술 예시
5. 정주 의향의 강화	부산을 삶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	“부산이 저한테 그냥 유학하는 도시가 아 니라 제 삶에서 중요한 곳이에요.” (C)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함	“여기서 취업해서 10년 정도는 부산에서 더 살고 싶어요.” (D)
	지역과의 관계가 정주 의향으로 연결됨	“지역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던 경험이 부산에 대한 애착을 더 크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E)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형성	“부산은 저한테 그냥 집처럼 느껴요.” (C) / “부산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야.” (A)

4.1.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의미 변화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아니라, 낯선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초기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역사회와도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과 한국인 참여자들을 만나고 함께 협력하면서 점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감소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제세계날 준비를 통해 한국 친구들과 친해졌고 친구들과의 특별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여자 A)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유학생들에게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 C는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느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봉사 클럽에서)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약간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한 가족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참여자 A)

“외로운 느낌 많이 없어졌고 친구 많아져서 좋아요.” (참여자 B)

“도서관 검사했을 때 같이 계셨던 할머니가 제가 점심을 안 먹었다고 사탕도 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참여자 B)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게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B)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경험하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감소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봉사활동은 단순한 사회참여 활동이 아니라 한국인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관계의 확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한 한국인 및 지역 주민과의 접촉은 참여자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변화가 곧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움과 감사를 주고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공동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은 외로움의 감소 자체보다는 관계 형성, 역할 수행, 기여 경험과 타인의 인정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관계의 확장은 단순히 한국인 친구가 늘어난 현상이 아니었다. 봉사활동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넘어 하나의 협력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신뢰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자기 성장과 정체성 변화 경험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사회참여 경험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향상,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의 형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확장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F는 지역 행사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경험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지역 행사에서 주민분들이랑 직접 소통했던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천천히 들어줘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여자 F)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달라졌어요. 어르신들도 너무 친절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재미있었어요.” (참여자 C)

“약간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럴 때 나는 오늘 좀 소용 있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또한 그는 봉사의 의미를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약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여자 D)

또한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고등학생들에게 아라비아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을 한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몰랐는데도 그냥 했는데 다들 알아들었어요.” (참여자 E)

이처럼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유학생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원봉사 경험은 참여자들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학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플로깅을 하면서 저도 좀 한국인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한국을 자기 나라처럼 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원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보여요.” (참여자 F)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경험 축적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한정된 정체성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성장과 정체성 변화는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애착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험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기성장은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재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정체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4.3.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참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위치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초기에는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적응하는 입장이었지만,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자신을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플로깅 봉사를 한 후 저 원래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버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보여요.” (참여자 F)

“공부만 하면 학교만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느끼게 돼요.” (참여자 D)

“인지지원 봉사도 하고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D)

참여자 D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김장 봉사, 지역 축제 안내 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매주 만나 학습을 돕거나 지역 행사에서 주민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안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참여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계속하면서 팀원들이랑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같이 준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 나도 이 공동체 사람이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F)

“저를 완전 외국인이다, 말 걸지 말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네, 같이 이야기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D)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한 가족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D)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단순한 봉사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수용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고등학생들에게 아라비아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을 했는데,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어요.” (참여자 E)

“담당자분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봉사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E)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외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자신을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이후 부산에 대한 정서적 애착 형성과 정주 의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4.4.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 형성

참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을 단순한 유학 생활의 배경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지역애착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역애착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의미 부여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산을 집처럼 느끼는 경험, 부산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부산을 삶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통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봉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반복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낯선 장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주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활동 이후에도 인사를 나누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산을 단순히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를 맺고 기여한 의미 있는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부산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집’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다.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것처럼 장소 정체성은 특정 장소가 자신의 삶과 자아의 일부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참여자들은 부산을 자신의 일상과 추억, 경험이 축적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산에 돌아왔을 때 아,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D)

“부산은 저한테 그냥 집처럼 느껴요.” (참여자 F)

이러한 진술은 부산이 단순한 유학 도시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의 지역애착은 부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지역애착은 장소 자체뿐 아니라 그 장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참여자들은 부산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장소에 대한 지역 애착의 중요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

“부산 사람들 착해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정이 많아요.” (참여자 E)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한 가족이다.” (참여자 D)

이처럼 참여자들은 부산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장소가 자신의 목표와 생활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과 관련된다. 참여자들에게 부산은 단순한 학업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가 축적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산이 저한테 그냥 유학하는 도시가 아니라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부산은 저한테 할머니 같은 도시예요. 따뜻하게 챙겨주는 존재 같아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의 지역애착은 부산을 자신의 삶과 연결된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장소정체성, 부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인 장소애착, 그리고 부산을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는 장소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지역애착은 앞서 살펴본 관계 형성, 자기 성장,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부산에 지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정주 의향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4.5. 정주 의향의 강화

참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을 경험하면서 향후 부산 또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부산은 단순한 유학 생활의 공간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저는 취업하고 싶어요. 지금도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취업해서 10년 정도는 부산에서 더 살고 싶어요.” (참여자 D)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부산이나 한국에서 취업해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던 경험이 부산에 대한 애착을 더 크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참여자 F)

“그래서 이번 학기 결심했어요. 방학에 안 가기로.” (참여자 C)

이러한 진술은 부산이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관계가 형성된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소속감은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감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장기 체류와 정주의향을 강화하는 경험으로 해석된다.

반면 참여자 E는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와 취업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언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토픽 점수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생활한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일단 한국에 남는 가능성이 있기는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데요.” (참여자 C)

이는 부산에 대한 애착이 단순한 호감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능성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과 같은 현실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정주의향은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정주 의향은 단순히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축적이 부산에 대한 지역애착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정주 가능성까지 확대시키는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산 거주 외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봉사활동 경험과 지역애착 형성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봉사활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애착 형성에 사회적 유대 형성, 정체성 재구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 부산에 대한 지역 애착 형성, 정주 의향 강화의 과정을 통해 지역애착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이 지역

애착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이 유학생에게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실질적 관계를 맺는 결정적 통로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봉사 현장에서 어르신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행사 담당자와 관계 맺거나, 동료들로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 의식 이론에서 제시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봉사활동을 매개로 활성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일상에서는 ‘외국인’으로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봉사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봉사활동이 일상적 차별 경험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면서, 지역민과의 통합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봉사활동 경험이 참여자들의 정체성 재구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플로깅 봉사 중 길거리 무단 투기에 분노를 느끼며 지역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내면화하고, 다문화 아이들 봉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자신을 재정의하였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 봉사 경험 연구에서 제시한 ‘도움받는 이주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의 자아정체성 전환과도(안지민 2014) 맥을 같이한다.

셋째, 봉사활동은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인식을 학교와 기숙사에 국한된 일상 공간에서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참여자들은 ‘공부만 할 때는 학교 안에서만 지냈는데,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유학생 봉사와 대학생 지역·해외 봉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가 교실에서 접하는 추상적 지식을 넘어 실제 지역 현장을 ‘조망’하는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자신을 특정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위치시키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넷째, 봉사활동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지역애착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산을 그리워한다’, ‘부산이 집처럼 느

껴진다’, ‘도시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 ‘부산은 할머니 같다’와 같은 풍부한 은유적 표현은 봉사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지역애착의 감정적 깊이를 드러낸다. 이는 Scannell과 Gifford(2010)의 삼원 모델에서 과정 차원의 정서적 요소(긍정적 감정, 안전감, 편안함)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주며, 부산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유학 공간에서 자신의 일부가 되는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과 일치한다.

다섯째, 지역애착이 단순한 감정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주 의향과 구체적 행동 계획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방학에 귀국을 포기하고 부산에 머물기로 결심하거나, ‘10년 정도는 부산에서 살고 싶다’ 등의 표현은 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정서적·관계적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Scannell과 Gifford(2010)의 삼원 모델에서 행동적 요소(근접성 추구, 장소에 머물려는 의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에 졸업 이수 요건 등 외재적 동기로 봉사를 시작한 참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봉사 경험의 누적을 통해 지역애착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봉사 참여 동기를 내재화하는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봉사와 지역애착의 양방향 강화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졸업 후 체류 자격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제도적 제약이 지역애착과 정주 실현 사이에 구조적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떠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하기 싫다’는 참여자의 표현은, 정서적·관계적 차원에서 지역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 애착이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지역애착 연구가 개인의 심리적 과정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적·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함께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봉사활동 경험과 지역애착 형성 사이의 관계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심층 탐구함으로써, 봉사-지역애착-정주의향으로 이어지는 경험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지역애착 이론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Williams & Vaske(2003)의 장소 정체성·의존성·사회적 유대 삼차원 모델, Scannell & Gifford(2010)의 삼원 체계 연구가, 일시적

체류를 전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적용 가능성을 현상학적으로 실증하였다. 특히 봉사활동이라는 질 높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단기 거주 유학생에게서도 강한 지역애착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질적 경험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자원봉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통합과 장기 정주 의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실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학생 지원 정책 설계에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언어 능력이나 학업 성취와 같은 기능적 지표로만 설명하는 기존 연구 경향을 넘어, 봉사활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한 관계적·정서적 적응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셋째, 현상학적 방법론의 적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애착 연구에 적용한 사례로서, 기존 양적 연구들이 통계적으로 확인한 봉사활동과 지역애착의 관계를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 구조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단일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 특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봉사 유형을 포함하여, 복수 도시 비교, 봉사활동과 지역애착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예원·박인권(2015).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인지와 지역사회 적응의 관계: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53-76쪽.
- 교육부(2023). Study Korea 300K Project(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김교연(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S 대학교의 학부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29쪽.
- 김윤희(2025).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요소 탐색, <문화기술의 융합> 11(6), 13-20쪽.
- 김은재(201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연구> 26(4), 65-90쪽.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2), 113-139쪽.
- 박은미·김상수(2025).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0, 127-150쪽.
- 안지민(2014). 새마을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결혼이주여성 공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생·결혼이주여성 공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209-235쪽.
- 윤영집·공하림(2025). 네팔 유학생의 감성지능이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성어문학> 56, 61-87쪽.
- 윤지원·김의진(2026).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인문사회과학연구> 8(1), 311-324쪽.
- 전영옥(2025).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축제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9(3), 359-379쪽.
- 최병숙(2012). 전북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장소애착,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8-209쪽.
- 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 (검색일: 2026.05.25)
- 한기덕(2025). 이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12(2), 175-206쪽.
- Altman, I., & Low, S. M. (Eds.).(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NY: Plenum Press.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 Giuliani, M. V., & Feldman, R.(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3), pp.267-274.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Copeland, J., Stukas, A. A., Haugen, J., & Miene, P.(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p.1516.
-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pp.213-225.
- Lewicka, M.(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pp.207-230.
- Giorgi, A.(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h: Duquesne Univ.
-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pp.6-23.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Scannell, L., & Gifford, R.(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pp.1-10.
- Wilson, J.(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pp.215-240.
- Williams, D. R., & Vaske, J. J.(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pp.830-840.

필자 소개

성 명 윤정훈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자우편 glasofk@bufs.ac.kr

성 명 조윤경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자우편 20196009@bufs.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ment Attachment through International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s - Focusing on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

Yun, Jung-hun · Cho, Yun-k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s of volunteer experiences in relation to community adaptation and place attachment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Busan.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The findings revealed five themes: expansion of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 growth and identity transformation, recognition as community members, formation of place attachment to Busan, and strengthening of settlement intentions.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participants developed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and came to perceive Busan not merely as a place of study but as a meaningful living environment and emotional home. However, language barriers, experiences of othering,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were identified as obstacles to full integr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volunteer particip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community adaptation, place attachment, and long-term settlement inten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Community Adaptation, Place Attachment, Giorgi's Phenomenology

투고일 2026. 06. 25 / 심사일 2026. 07. 16 / 게재확정일 2026. 07. 21